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한자리에

방과후학교 정책 공유·현장 의견 수렴 위한 소통의 날 운영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이 최근 해당 기관 소강당에서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외부강사 대상으로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소통의 날에는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장 및 방과후학교 담당자는 물론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50여명이 참석했다.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소수 몇 명의 강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던 시스템을 벗어나 전체 방과후학교 강사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함께 방과후학교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진구 단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 방과후학교 정책 소개 ▲ 방과후학교 관련 공약 사업 안내 ▲ 질의응답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개정 방향 논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지역교육협력과 윤은숙 과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우는데 있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돼야 한다. 방과후학교 강사님들이 정규교육과정 외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님들과의 협치로 방과후학교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또 방과후학교 강사님들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

립추진단은 광주교육이 교육구성원 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설립됐다. ▲ 시민협치 ▲기후환경교육 ▲대안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방과후학교 ▲돌봄 ▲학부모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도 ▲광주교육 시민사회의 정당회 ▲퇴직교직원 인력풀 사업 공청회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소통의 날 ▲은마을 이음학교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김진구 단장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은 다양한 주제의 교육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협치를 통해 광주교육 소통공간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이 최근 해당 기관 소강당에서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외부강사 대상으로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강진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 성과발표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은 최근 강진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 참여 고등학생과 참여학교 교직원, 운영진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교육지원청 다산실에서 '강진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진 R&E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 성과발표회는 관내 고등학생 15명이 참여해 지난 4월 1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진행된 프로그램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주최한 이병삼 교육장을 비롯해 강진고 교장, 교사 등이 참석해 바쁜 학업 일정 속에서도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졌고, 이수증 수여, 우수팀 시상, 성과 우수팀의 발표와 토론, 평가교수의 평가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강진고 15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4개의 융합 영역 -

정치와 사회, 삶과 철학, 경제와 생활, 인간과 환경 - 으로 팀을 이루어 학생주도의 소논문 작성과 발표토론 과제를 수행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동신대학교의 김춘식 책임교수, 목포대 김재은 운영교수를 비롯한 10여명의 현직 대학교수와 고려대, 포항공과대학교, 동신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3명의 대학생 멘토들이 참여해 학생들을 지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진고 김OO 학생은 “소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멘토 및 교수님들이 잘 지도해주시고 팀원들과 함께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고,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들과 이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 주변의 친구와 후배들에게도 프

로그램 참여를 적극 추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창의융합 발표토론 프로그램(CCEP)의 개발자인 김춘식 교수는 “미래 교육은 창의적 상상력을 가진 ‘질문하는 인간’(Homo Quaerens)을 양성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독서와 문해력을 통해 창의성과 인문학적 상상력, 나아가 썬 GPT 대담의 오류를 판단하는 능력, 자료 편집 능력, 발표토론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능력 등을 키워주는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독서를 통한 글쓰기 능력,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를 가지게 됐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병삼 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자신이 세상을 바꿀 주인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전담지원기관 지세움 학교폭력예방·피해학생회복 위한 학부모교육 운영

20일·22일·29일 18:30~20:30 총 3차례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전담지원기관 지세움이 20일부터 29일까지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교육활동 정상화로 인해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시교육청은 가정교육과 연계해 현실성 있는 학교폭력 대응 방안을 중점으로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 행동 원인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양육 방법을 익혀, 학교폭력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전문가와의 대화 시간과 공예 체험 행사를 마련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부모의 마음도 위로하고자 한다.

올해 교육은 20일·22일·29일 18시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총 3차례 운영한다.

강의 첫날인 20일에는 지세움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이세라 박사가 ‘ADHD 아동 및 청소년의 이해와 적절한 양육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22일은 봉선동 ‘동네작업실’에서 공예전문가와 함께하는 가족공예 체험이 운영된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지세움에서 썬는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김금운 소장의 ‘청소년기 인지·정서·행동의 이해와 건강한

소통 방법’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후에는 전문가와 학부모와의 상담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초·중·고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관심이 있거나, 자녀 양육에 고민이 필요한 학부모이다.

신청 방법은 학교폭력전담지원기관 ‘지세움’에 전화(062-226-8400~3)해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교육청 엄길훈 체육예술인성교육 과장은 “부모가 학교폭력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녀 학교폭력 경험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제적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사단법인 영광법성포 굴비 보존협회 회원업체
전라남도지정 영광굴비특산물사업단 회원업체
영광수협 중매인 18년

2代째 이어온 전통방식의 명품굴비

축가네 경성굴비

국내산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이상 간수가 빠진 천연소금으로 간하고 해풍과 습도가 알맞은 영광 법성포에서 건조하여 그 깊은 고유의 참맛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 이경률

매장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3
공장 :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단길2길 48

주간 061) 356-2173 야간 061) 356-5932
팩스 061) 356-4215 문자 010-8604-1486
핸드폰 010-3624-2173 / 010-3833-2173
농협 351-1092-5533-13 예금주 : 이경률